

이번 주말 수서KTX 면허 발급 추진, 지도부 체포영장 발급 더욱 강경해지는 정부에 맞서려면 이제는 전면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지난 14일 전국 상경 집회는 정말 감격스러웠다. 흩어졌던 노동자들이 모두 모여 조직력이 건재함을 확인하고 사기가 올랐다. 노동자들은 고려대에서 행진해 온 3백여 명의 학생들을 비롯해 엄청난 지지가 존재한다는 점도 눈으로 확인했다. 이날의 성공적 집회는 정부가 물러서지 않으면 철도 노동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를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이 기쁨에 도취될 새도 없이,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 요구 따위는 무시하고, 오히려 더 강도 높은 탄압으로 대응했다.

16일, 박근혜는 직접 나서서 철도노조 파업을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고 “비정상적 기득권” 지키기라며 비난했다. 같은 시간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직위해제는 벌써 8천 명에 육박한다.

경찰은 난데없이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해, 철도노조 활동가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또다시 속죄양 만들기 전술이다.

최연혜도 세번째 담화문에서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어떤 양보도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도 양보를 전혀 한 적이 없는 데도 말이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답변을 요구한 시점인 14일 이전(12일과 13일)에 이미 수서KTX 회사의 면허 신청과 법인 설립 등 기 신청을 완료했다. 면허는 신청 후 1주일 내로 발급 가능하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번 주말경 “면허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속하게 민영화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한치의 양보 여지 없이 완강한 이유는 철도 파업에 걸린 판돈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부에 타격을 가하고, 실로 위기에 직면케 했다. 잘 조직된 노동자 부분의 대규모 집단적 투쟁이 심대한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힘 때문에 철도 파업이 사회적 지지의 초점이 될 수 있었다. 억눌린 수많은 사람들은 철도 파업에서 ‘박근혜 정권에 보기 좋게 한 방 먹일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이다. 철도 파업이 거리 항의 운동인 국



정원 선거 개입 규탄 촛불시위보다 정권에 훨씬 더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 파장이 커서 정권의 위기가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파업에 걸려 있는 판돈을 생각한다면, 철도 노동자들도 그에 상응해 투쟁 수위를 높여야만 정부를 물러서게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 대해 중앙지도부는 답변해야 한다. 주요 열차 감축까지 감수하고,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하려면 단지 필공 파업으로 버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 민영화 강행에 ‘전면 파업 하자’는 현장 여론이 커지고 있다”(16일자 서울지방본부 파업속보).

또, 어느 기관차지부 조합원은 말했다. “우리 투쟁이 패배하면 다른 모든 곳에서

똥리기 때문에 이 파업이 마지노선이라 여기고 있다. 정부 뜻대로 되면 절대 안 된다.”

14일 김명환 위원장은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하며 말했다. “17일까지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대규모 2차 상경 투쟁을 전개하겠다.”

그러나 이미 14일 14시까지 노조의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혔는데도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면허발급을 강행하려 한다.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계속되는데도 우리의 대응 수위는 이대로라면 정부는 장애물 없이 면허 발급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적잖은 조합원들이 정부를 막을 수 없다는 실의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온갖 무리수를 감수하며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중앙지도부는 전면 파업을 선언해야 한다. 늦어도 노동자들이 다시 대규모로 모이는 19일에 전면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대규모 집회에 그치지 말고, 전면 파업으로 저항의 수위를 높여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그동안 사태 변화를 보며 전면 파업을 대비하자고 했던 투사들은 중앙지도부에 전면 파업 선언을 촉구하고 기층에서 전면 파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철도 파업 정당하다”

광범한 탄압 방어 목소리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와 고소고발에 이어, 16일 박근혜 정부가 결국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지도부 10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다.

그러나 탄압을 방어하는 목소리는 광범하다. 16일 저녁엔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3백여 명이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는 민주노총 앞으로 달려와 촛불 집회를 열었다. <뉴스9>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과반이 정부의 체포영장발부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초등학교 교사의 철도파업 지지 계기수업.

16일 오전 1천2백여 개 단체가 모인 원탁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탄압을 규탄했다. 야4당과 각계 대표자들은 “철

도 파업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정당한 투쟁”이고,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건 유신시대적 발상”이라며 정부에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법률가 단체들은 철도공사를 ‘업무상배임죄’, ‘무고죄’ 등으로 고발하고,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규탄했다.

무엇보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철도 파업에 대한 뜨거운 지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철도 파업 지지 각계 선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농민·장애인·교수학술 단체들도 파업을 지지하고, 정부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려대학교에서 시작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는 전국의 대학, 고등학교, 심지어 해외 대학에까지 퍼지고 있다.

투사들이 전면 파업 실제 준비의 구심이 되어야 한다

파업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데도 정부가 꿈쩍도 하는 않는 것을 보면서, “전면 파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여론이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다.” 적어도 이렇게 말한다. “정부가 우리와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런데 전면 파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지들 중 일부는 혹시 파업 전면화가 ‘지금의 뜨거운 지지를 잃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철도 파업이 폭발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는 ‘합법’ 파업이라서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를 위해 ‘불통 정부’에 굳건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파업 효과가 클수록 정부의 탄압과 보수 언론의 비난도 커지고, 그만큼 참여한 논쟁과 대립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논쟁에서 우리가 결코 불리한 것은 아니다. “불편해도 괜찮다”는 광범한 지지 여론이 있다. 게다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경한 대응에 맞서 노동자 측도 투쟁의 수위를 높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 파업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알 것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으로 정부를 더 세계 압박한다면, 지금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더 강력한 지지와 연대가 모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철도 노동자들이 물러서지 않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박근혜에 밀려 고개 숙이고 복귀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지 않는다.

엄청난 대중적 지지와 연대라는 얻기 힘든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영등포전



기지부 한 노동자의 말처럼 “지금처럼 국민적 지지가 있을 때, 전면 파업으로 맞서더라도 철도를 지켜야” 한다.

일각에선 전면 파업을 해도 다수의 ‘필공’ 조합원들이 파업 대열에 합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필수유지업무’ 거부에 따른 탄압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따라서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필공 파업을 벌여 온 상황에서 전면 파업으로의 전환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파업 상황을 보면, 조직력이 강한 부분이 굳건하게 버티면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곳들이 강화되는 추세다. 영주열차승무지부는 “지난 파업 때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전원이 참가해 모두 직위해제돼 전국 1등”의 ‘영광’을 누렸다.

게다가 “동료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철도를 굴러가게 한다”는 점 때문에, ‘필공’ 조합원들이 느끼는 “고통”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 편의 동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승리를 위한 전망을 제시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다. 만약 이번 주에 정부가 면허권 발급을 완료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저지할 수 있을 만큼 저항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파업은 장기화되고 승리할 가능성은 줄어들다’는 생각이 퍼질 수 있고, 실의에 빠져 이탈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면허권을 발급하기 전에, 지금처럼 ‘필공’ 조합원들 사이에서조차 “지도부가 호소하면 나는 갈 수 있다는 분위기” 일 때 이들을 파업에 동참시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면 파업을 조직해 나간다면, 이에 호응하는 ‘필공’ 조합원들이 결코 적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전면 파업을 주장해 온 지부장을 포함한 투사들의 구심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산개해 있어서 서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더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중앙지도부에 전면 파업을 촉구하고, 조합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지금 사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서지본 확대쟁대위에서 한 지부장은 “전면 파업의 배수진을 결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에 공감하는 지부장을 포함한 투사들이 지금 의지를 모아 실행력을 보여 줘야 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민주노총이 연대 파업으로 응답해야 할 때다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의 초점이 됐고, 계급 대립전으로 발전했다. 이 투쟁에서 정부를 물러서게 한다면, 다른 노동자들도 저항할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온갖 고통 전가 정책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철도 파업의 성패는 노동계급 전체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연대 파업을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지하철노조 파업

박근혜 정부는 철도 파업 기간에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영리병원 허용, 55세 이상 노동자 전 업종 파견 허용 등의 개악안을 담은 ‘4차 투자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악도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은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한다.

특히,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예정대로 18일 파업에 돌입한다면 철도 파업에 결정적인 원군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을 막으려 애쓰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연대 파업을 기대하며 이렇게 말한다. “박근혜의 폭주를 막으려면 같이 싸워야 한다. 18일 기대하겠다.” “서울지하철이 요구하는 임금, 복직 등은 당연한 건데, 함께 파업하면 정부에 부담이 될 거다. 꼭 부담이 되어야 한다.”

파업 무력화, 안전 위협

대체인력 투입을 막자!

지난 15일 발생한 80세 노인 사망 사고는 철도노조가 누차 우려·경고했던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예고된 비극이었다. 철도공사 측은 열차 운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눈이 멀어, ‘실습 학점’을 미끼로 19세 교통대학 학생들까지 운행에 투입했다.

이는 권영국 변호사가 지적하듯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우리 모두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질주다.

특히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하고 힘을 갉아먹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부에서는 ‘대체인력 투입을 계속 방지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파업을 하면 내 자리는 비어 있어야 효과가 있는데, 대체인력 때문에 이마저도 어렵다. 뭘가 방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 투입 저지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만약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피켓라인을 형성해 대체인력 투입을 막고 열차 운영을 중단·지연시킨다면, 파업을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체인력을 저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

적인 방법은, 바로 주요 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점거하는 것이다. 한 노동자는 “수도권의 수천 대오가 고양차량기지 같은 데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2003년 은행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조흥은행 본점을 점거하고 단호하게 나흘 동안 연좌 파업을 벌여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

거점 농성은 노동자들의 결속력과 사기를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지난 14일 집회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은 “서로 산개해 있다가 1만 명이 모이니까 정말 힘이 난다”고 했다. 2007년 이랜드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처럼, 노동운동의 다른 부분과 사회운동에 연대의 초점도 제공할 수 있다.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선명 진보 신문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 연대

레프트21을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레프트21) 철도 민영화 반대 특별 페이지
<http://left21.com/nosale>

<http://www.left21.com>

나누고 싶은 투쟁 소식과 의견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전화: 02-2271-2395, 010-8908-7912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 연락처를 보내 주시면 (레프트21)의 철도 민영화 관련 기사를 보내 드립니다.